

# 아파트 놀이터 야금야금 줄어든다

광주 주차장 용도변경 허가 신청 잇따라

## 놀이공간 빼앗긴 어린이들 PC방 등 내몰려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입주인 입장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잠식되고 있는 셈이다.

30일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최근 각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입주인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용도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개보수해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 신청 건수는 모두 13건(지난해 포함)이다. 지역별로는 ▲서구 4건 ▲남구 3건 ▲북구 4건 ▲광산구 2건 등이다.

주택법 시행령(제 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상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현재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모두 1069곳이다.

단 주차장 공간 개조면적은 어린이

놀이터 전체 면적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북구 문화동 A아파트는 3년 전 어린이놀이터와 테니스코트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며, 북구 문흥동 B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주인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놀이터를 빼앗긴 채 PC게임방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 놀이터와 인접한 곳에 통행차량이 증가하면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입주민 김모(여·37)씨는 “전에는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노는 모

습을 집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어린이놀이터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게 됐다”며 “아이가 밖에서 놀고 싶다고 자주 조르는데, 아이 혼자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 집 안에서 보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아동전문기관 관계자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놀이 공간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PC게임방을 가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라며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관계 당국의 법률적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30일 광주시 북구 A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이곳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했으나 입주인들이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뺨 뚫린 해상 경계

목포서 中 7~8명 밀입국 추정 선박 발견

목포항에서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발견돼 허술한 해상경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대반동 목포해양대 부근 해안에서 0.5t 중국 소형 선박이 주민 신고로 발견돼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배에서는 중국 과자 봉지 3개와 우유팩, 생수통, 찢어진 태극기 등이 발견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 배는 작년 11월 관매도에서 발견된 중국 선박과 비슷한 크기의 점을 고려할 때 7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고, 상하이 밀 쪽 항구에서 바로 출발해 목포항까지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선박을 처음 발견한 신고자가 ‘이 배가 3~4일 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말에 따라 5일 전부터

항적 추적 작업과 함께 북한 일대 도령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진도와 신안에서 중국인 밀입국 여선이 해상 경계를 뚫고 밀입국한 데 이은 것이어서 이번에도 밀입국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소재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해경은 이 선박이 목포항에 3~4일 정도 방치돼 있었지만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경위 파악에 나서는데 등 일일한 해상경계 태도가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진도 관매도와 22일 신안군 가거도에 중국인 밀입국자 8명과 7명이 탄 소형 여선이 밀입국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승부조작 가담 부끄럽다” 유서

## K리그 전북 출신 정종관 자살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었던 헬린저스리그 서울유나이티드 정종관(30·사진)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이 부끄럽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P호텔의 한 객실에서 정 선수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호텔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시신 옆에는 “승부 조작의 당사자로서 부끄럽다”는 내용의 A4용지 한장과 호텔 메모지 4장으로 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있는 선수들은 모두 내 친구인데 아이들이 내 이름을 아직 진술하지 않은 것은 의리 때문이다. 모두 내 책임이고 내가 사기 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재 3부리그 격인 헬린저스리그에서 뛰는 정 선수는 K리그 전북현대에서 2007년 시즌까지 미드필더로 뛰



었으며 염기훈, 김형범 선수 등과 함께 그해 전북현대의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그러나 이듬해 초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후 뒤로는 서울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은 정 선수가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 대상 중 한 명이었다고 밝혔다.

정 선수는 승부조작에 참여한 선수를 포섭하기 위해 대전시티즌 미더필더 박모(26·구속)씨와 광주FC 골키퍼 심모(31·~)씨에게 1억2000만원과 1억원을 건넨 혐의로 21일 구속된 브로커 김모(27)씨와 또다른 브로커 김모(28)씨와 같은 고등학교 축구부 선배 사이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차량 절도 허위신고 ‘골머리’

개인의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해 누군가 차량을 훔쳐갔다면 허위신고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허위신고로 동원되는 경찰력에 비해 처벌 수준은 미미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30일 주차해 둔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며 경찰

차에 허위로 신고한 김모(42)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말께 경찰에 “광주시 남구 백운동 집 앞에서 주차해둔 1600만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누군가 훔쳐갔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지인에게 600만원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기로 한 뒤 돈을 썼으나 승용차를 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승

용차 번호를 도난차량으로 수배,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에서 발견했으나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채권·채무로 인한 허위신고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차량 절도 허위신고는 지난해 광주에서만 150여건이나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신고자들이 즉결심판에 회부됐

다. 그러나 즉결심판을 받더라도 처벌 수준이 낮아 경찰

력 낭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차량 절도 등에 대해 허위신고할 경우 1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광주남부경찰 관계자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허위신고라는 의심이 들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벌금을 각오하더라도 차량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6년전 도박빚 300만원 안값다”

고급 승용차 강탈 조폭 2명 구속

## 광주서부경찰

광주서부경찰은 30일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차량을 빼앗은 조폭폭력배 정모(27)씨 등 2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다방 앞에서 안모(29)씨

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1대(2000만원 상당)를 빼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6년 전 안씨에게 도박 자금으로 300만원을 빌려줬다가 안씨가 돈을 갚지 않자 다방으로 불러내 열쇠를 빼앗아 차량을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무안·여수서 의문의 죽음

저수지·선박서 남성 숨져

무안과 여수에서 20대와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오전 9시30분께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중등포저수지에서 김모(25·목포시)씨가 물에 빠져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취업문제로 고민을 해왔다는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께에는 여수시 오천동 만성리해수욕장 앞 2.4km 해상에 정박 중인 파나마 국적 LPG 운반선 H호(4045t) 선내에서 선원 P(41·필리핀)씨가 숨져있는 것을 동료 선원들이 발견, 신고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위조 신용카드 이용

2천만원 ‘꿀꺽’ 30대 구속

목포경찰은 30일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 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이모(31·부산시)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부산시 진구 계곡동 한 금융기관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100만원을 부당인출하는 등 최근까지 22회에 걸쳐 현금 227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모(여·54)씨의 명의 등 피해자 5명의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중국에 사는 공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현금을 부당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나원침 (8325) 김장두



옥상 하우스 양귀비 재배

상습 투약 50대 3명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30일 도심 주택 옥상 비밀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밀재배한 뒤 상습 투약한 수산업자 A(57)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기업 직원 B(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께 목포시 죽곡동 자신의 집 옥상에 비밀하우스를 만들어 양귀비를 밀재배한 뒤 아편 1.867g(55명분)을 추출해 자신의 아내와 1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영암읍 자신의 집 옥상 비밀하우스에 양귀비 87그루를 밀재배한 뒤 아편 3.96g(132명분)을 추출해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한편, 서해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14명을 적발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헤어지자” 동거녀 말에 격분 행패

○6년 동안 사귄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말한데 격분, 동거녀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3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박모(여·47)씨의 음식점에 찾아가 애어컨과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져 모두 8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전날 밤 “헤어지자”는 말을 한 동거녀 박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날 찾아가 행패를 부렸는데, 경찰에서 김씨는 “연락이 안돼 찾아갔지만 여전히 (박씨가) 차갑게 굴어 화가 나 물건을 내던졌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3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숙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부담 경감

###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결

### 9급 야간반

강의시간 :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총합반

###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 명품 "강력단과"

영어, 국어, 행정학, 행정법, 국어, 법학, 경제학, 교육학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 월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채점확정기 도입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부담 경감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  
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